

제308회 정기 이사회 의사록

건명	1. 제485호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2. 제2021-6호 2021년 1분기 예산집행 실적 3. 제2021-7호 2021년 4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상정자	사장 김명중		
일시 및 장소	2021. 4 15.(목) 16:00 ~ 17:28, 18층 대회의실		
출석 인원	이사 9명	결석 인원	없음
참석자	유시춘 이사장, 김양은 이사, 김진 이사, 문종대 이사, 박강호 이사, 선동규 이사, 이영한 이사, 장옥님 이사, 정동섭 이사		
회의 결과	1. 제485호 : 공개, 원안 의결 2. 제2021-6호 : 공개, 청취 접수 3. 제2021-7호 : 공개, 청취 접수	기록자	간사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21년 5월 20 일

이사장 유 시 춘



이 사 김 양 은



이 사 김 진



이 사 문 종 대




이 사 박 강 호



이 사 선 동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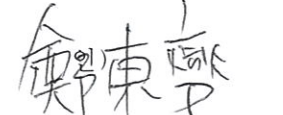
이 사 이 영 한



이 사 장 옥 님



이 사 정 동 섭



제 308 회

이 사 회

- ◆ 일 시 : 2021년 4월 15일(목) 16시
-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본사 18층 대회의실

한국교육방송공사

회 순

I . 개회	1
II . 인사	2
III . 전차 의사록 확인	4
IV . 상정안건	5
< 의결안건 >	
제485호 :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6
< 보고안건 >	
제2021-6 호 : 2021년 1분기 예산집행 실적	10
제2021-7 호 : 2021년 4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23
V . 폐회	37

(開會 : 16時 00分)

I . 開 會

○ 議長 유시춘

사무국장님, 성원보고 해 주십시오.

○ 理事會 事務局長 김혜영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아홉(9) 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기에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 이종풍 위원장, 김무성 사무처장, 김경민 사무국장 등 모두 3명입니다.

○ 議長 유시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0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議事棒 三打))

II. 人 事

○ 議長 유시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주 화창한 봄날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봄을 마음껏 즐기 못하고 있는 불편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틀째 700명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 많이 지친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길어지다 보니 경계심도 무디어지고 해이해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EBS 방역 담당 부서는 더욱더 세심히 살피고 직원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방송사 특성상 외부 참여들이 많습니다.

일전에도 외부 참여자들로 인해서 몇 분이 검사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쪼록 EBS 직원은 물론이고 EBS를 방문하시는 모든 참여자들도 방역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안건은 상정안건 세 건인데요.

보고안건으로 1분기 예산집행 실적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올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연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일 텐데요, 이사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명중 사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 社長 김명중

안녕하십니까.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원격교육을 지원해온 온라인클래스가 거의 안정화되었고, 원격교육지원 비상대책단 상황실은 그동안 긴 비상대기 체제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상시대기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번 주가 아마 노란 점퍼를 벗고 일하는, 오랜만에 평상복으로 일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고도화된 시스템의 제공을 위해서 EBS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제308회 이사회에서는 1분기 예산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어려움, 또 온라인클래스 운영을 위한 전사적 지원 등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한 첫 분기의 결과입니다.

많은 독려 부탁드립니다.

외부에서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EBS의 대표 프로그램인 <모여라 덩동댕>이 이달의 PD상 ‘TV예능’ 부문의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석학 강연 사업 국고 사업자로 EBS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고 49억원을 지원받아 글로벌 석학들의 강의를 제작하여 EBS 플랫폼에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EBS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제485호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결과 「2021년 1분기 예산집행 실적」 및 「4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사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Ⅲ. 前次 議事錄 確認

○ 議長 유시준

그럼 전차 의사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개최된 제307회 정기이사회 의사록을 모두 이메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의나 수정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송부해 드린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理事들 있음]

그러시면 동의해 주신 대로 제307회 이사회 의사록은 부쳐드린 원안대로 접수합니다.

((議事棒 三打))

IV. 上程案件

○ 議長 유시춘

다음은 회의 공개 여부인데요.

제485호 의결안건, 제2021-6호 보고안건, 제2021-7호 보고안건은 전례대로 공개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決案件〉

【 第485號：人事規程 一部 改正案 】

○ 議長 유시춘

그럼 안건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議事棒 三打))

정책기획센터장, 보고해 주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p)5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 사유는 매우 송구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 개정사항에 연동되는 부속조항이 있었는데, 과거 개정을 하면서 딸린 해당 조문 번호를 정정하지 못해서 이번 개정안이 상정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직급제 개선을 하면서 위원급과 부장대우급을 ‘수석급’으로 통합하여 직급 수를 9개에서 8개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직급제에 관한 규정이 제38조의 제1항인데요, 여기에 9개 호가 8개 호로 변동이 되었는데 이와 연동되는 부속조항인 제38조의 제2항 및 3항에 언급된 호 번호가 함께 수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외람되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2020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기존 조항을 변경해서 2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p)6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38조의 제2항을 보시면,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임용기준은 근무평가, 포상, 연수성적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차장급 인사를 할 때 반영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급이 통합되면서 차장급의 호가 제38조의 제1항 제4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돼 있는 제6호를 ‘4호’로 바꿨어야 하는데 이를 미처 바꾸지 못했

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4호로 바꾸고자 합니다.

해당 조항 제3항을 보시면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규정에 의한 임용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2월 1일자로 각각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정 호봉 이상이 되거나 일정 직급이 일정 기간을 유지한 경우에 임용이 자동으로 되는 그러한 대상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제38조의2의 1항에 표시되어 있는 제5호 차장대우급, 6호 선임급, 7호 주무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항의 제1항 ‘제6호, 7호, 8호’를 ‘제5호, 제6호, 제7호’로 바꾸는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p)7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정사유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EBS 인사규정 제46조를 보면 3항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7조에는 휴직기간으로 4항에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하여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2020년 12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이 바뀌면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규정에 반영하여 제47조의 4항을 1회가 아닌 ‘2회에 한하여 나눠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理事 정동섭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말하고 ‘2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다른 말입니까?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두 번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맞습니다.

○ 理事 정동섭

그럼 2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것은 3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2년이라고 하면 1년, 1년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에 따라 8개월, 4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근로자가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理事 이영한

사소한 건데, 여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한정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정’으로. 그런데 여기는 ‘한하여’로 돼 있는데, ‘한정하여’ 위에도 같이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組織法務部長 송춘실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조직법무부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정’하고 ‘한하여’가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예.

○ 理事 이영한

별 차이는 없는데,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의견을 주시면..

○ 社長 김명중

그렇게 하세요. 수정..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한정하여’ 예, 그러시죠.

그러면 그것은 조건부로 해서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이것은 본 안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휴직기간 여기에 대해서 적용해서 우리 EBS 내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경영지원센터장님께서..

육아휴직 하고 계시는 분, 예, 조직법무부장이 답변..

○ 議長 유시춘

예.

○ 組織法務部長 송춘실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원은 모두 17명입니다.

○ 理事 선동규

그런데 예를 들어서 EBS 직원 중에 부부가 예를 들어서 같이 직원이다, 부부가 함께 여기 EBS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부부 중에 한 명만 하게 돼 있습니다.

○ 理事 선동규

부부 중에 한 명만?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예, 한 아동에 대해서.

○ 議長 유시춘

아마 조금 더 섬세하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고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저출산이 지금 국가적 화두가 되어 있는 이즈음에 보다 더 육아휴직을 잘 쓸 수 있도록 고려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적극 홍보해서 저희가 근로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더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할까요?

[“예.” 하는 理事들 있음]

그러면 의결안건 제485호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議事棒 三打))

〈 報告案件 〉

【 第2021-6號 : 2021年 1分期 豫算執行 實的 】

○ 議長 유시춘

다음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6호 「2021년 1분기 예산집행 실적」 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三打))

이 안건은 실무에 가장 밝은 기획예산부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 企劃豫算部長 김우영

기획예산부장입니다.

2021년 1분기 예산집행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0 보시겠습니다.

보고서는 전체 개관과 수입, 비용, 자본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10 개관입니다.

수입은 85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비용은 6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익은 215억원이 되어 전년동기대비 16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은 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언뜻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맨 하단 표를 보시면, 공적재원에 정부예산 부분을 제외할 경우 전년동기대비 수입은 30억원 증가, 비용은 3억원 증가하여 이익은 27억원 증가하여 전년 수준에서 조금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 부분은 크게 공적재원과 자체수익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공적재원은 19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1억원 감소하였고, 자체수익사업은 66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적재원입니다.

수신료는 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방통보조금은 4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순증하였습니다.

참고로, 방통보조금은 EBS가 사업비를 먼저 선 집행 후 ‘e나라도움’이라는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청구함으로써 수입으로 인식되는 구조입니다.

통상 3월부터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작년에는 방통위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4월부터 하는 바람에 올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교육보조금은 9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은 디지털 뉴딜 국고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기존 특별교부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교부 조건 협의가 있었고, 정부의 잇따른 추경으로 재정이 부족한 등의 이유가 제기되어 교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교부가 개시될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같이 교육보조금에서 교부가 지연되면서 일시적 실적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 중에 방송광고, 제작협찬, 채널공급으로 구성된 방송사업부터 보시겠습니다.

방송광고는 5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부가적 설명을 위해서 잠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참고자료] 1, 2, 3이 있습니다.

[참고자료1]에서 주요 매체별 광고 실적을 보시면, KBS가 전년동기대비 29.1%, MBC가 41.3%, EBS 22.5% 증가한 것에 비해 불교방송 등 다른 결합판매 대상들은 CBS를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광고주가 라디오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여건은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것 같으나, 문제는 [참고자료] 2, 3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유아어린이 부문 시청률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키드존 광고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작협찬은 5억원 감소하였고, 그러나 올해 이월수입이 없어서 발생한 차이기 때문에 실적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채널공급은 계약공급 단가 인상으로 0.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p)15로 가시겠습니다.

(p)15 출판사업입니다.

전체 42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억원 증가했습니다.

직영출판이 28억원 증가한 영향입니다.

직영출판에서 초·중학 교재는 일제히 12%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온라인클래스 2차 연도를 맞아 그 영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교(연계) 교재는 234억원으로 4.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개학이 지연되어 채택 시장에서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는 정상 개학함에 따라 1개월 먼저 판매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장 매출이 많이 증가한 고교(비연계) 교재는 88억원으로 전년대비 33억원, 약 61% 증가하였습니다.

신간교재가 전년대비 37책 증가한 영향입니다.

다음 장 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1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글로벌사업, 유아어린이 사업 모두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IP기반 즉, 펍수사업의 실적 하락입니다. 7억원으로 1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펍수 실적은 작년에도 2분기부터 매분기 20% 이상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콘텐츠사업입니다.

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억원 감소했습니다.

IPTV 부분에서 이월수입 차이로 6억원 감소하였고, 유튜브 또한 펍수 실적 하락과 연동하여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B2B 판매 또한 스마트리스닝 사업 실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3억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미디어 플랫폼에서 신규 플랫폼인 쿠팡플레이에 콘텐츠를 공급하게 되면서 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오프라인공간 사업의 경우 수탁사업에 구축사업이 있고, 콘텐츠사업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로열티 수입이 포함되어 있는데, 파주운정 테마파크가 4월 중에 오픈 예정이라서 2분기 이후 수입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온라인사업입니다.

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억원 증가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서비스 개편한 구독서비스가 4억원으로 1억원 증가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3월 구독자 수를 비교하면 39.3% 증가하였습니다.

사이트기반제휴 사업은 40억원으로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명품직업콘텐츠 사업과 중학프리미엄 사업이 큰 두 축인데, 직업 부문은 공무원 시험 개편과 직영 전환이 맞물리면서 전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학프리미엄은 작년 온라인클래스 효과가 계속 이어져서 전년동기대비 학습자 수가 61.6% 증가하여 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협찬용역사업입니다.

수탁은 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억원 증가하였고, 협찬용역사업은 7억원으로 2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둘 다 주 요인은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이월사업 규모의 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4]를 보시겠습니다.

전략성장지원사업의 수익 실적입니다.

뜻은 전략적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것이고, 작년까지 있었던 신수종사업을 명칭을 달리 해서 올해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4개 사업에서 유튜브를 뺀 3개 사업과 구독서비스 등 신규 6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비용 부문입니다.

비용 부문은 (p)22 세부사항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입니다.

1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모두 인건비에서 증가한 것으로 호봉 및 승급상승분과 국고 사업에서 집행기로 한 인건비가 국고 교부 지연으로 대체를 아직 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증가한 3억원이 원인입니다.

다음 장 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94억원으로 17억원 증가하였고, 1·2TV에서 전년 동기 대비 2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봄 개편에 제작할 부분이 상당부분 하반기로 이월됨에 따라서 기저효과에 따른 인식 차이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보조금사업입니다.

10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6억원 증가했습니다.

작년 사업이 이월된 사업비가 원격교육지원사업 등 3개 사업 98억원 있고, 여기서 집행된 47억원이 증가한 원인입니다.

다음 자체수익사업비에서 출판사업비입니다.

15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대체로 수입실적과 연동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은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교재개발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37책이 늘어서 이로 인한 개발비 집행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방송단행본 또한 신간 도서 5책에 대한 개발비 증가로 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p)27 콘텐츠온라인사업비 바로 가겠습니다.

콘텐츠 사업은 실적 연동 수수료 감소로 소폭 감소하였고, 온라인사업은 3억원 증가하였는데 중학 프리미엄 실적 연동 수수료 2억원과 EBSlang의 초목달 콘텐츠 리뉴얼과 관련해서 1억원 비용이 발생한 것이 원인입니다.

콘텐츠 리뉴얼은 기존의 플래시가 지원 종료됨에 따라서 HTML5로 전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장 경영관리비입니다.

(p)29입니다.

광고협찬, 채널공급, 문화콘텐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1억원이고 전년 동기 대비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대체로 실적 연동 비용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경영관리비입니다.

총 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억원 감소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감소분의 대부분은 집행은 4월에 하지만, 결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결산 처리가 3월로 인식이 되어서 발생한 차이이고, 이를 고려하면 실적은 예전과 동일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자본 예산입니다.

실적은 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억원 증가했습니다.

신입직원 채용에 따른 개인 노트북 등 구매와 클래스e 외부 임차 스튜디오 보증금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1분기 실적을 요약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정부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서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제외하면 전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내용 면에서 다소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작년에 온라인 클래스나 팽수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호조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실현하였고, 그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 목표를 늘려 잡은 게 있는데, 올해는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클래스 효과가 감소하고 있고, 팽수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서비스나 초등 프리미엄, 방송 기반 단행본 등 신규로 출범하거나 재정비해서 출발한 사업들이 온라인 클래스 사업비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 시작조차 못 했거나 실적이 아직 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광고와 출판에서 실적 초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광고는 올해 시장에서 예측치는 1.6% 정도 전체 지상파 광고까지 성장하는 건데,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파 광고시장 내에서 라디오에서 이탈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반영되는 것인지 계속 이어질 것인지가 불투명하고, 출판의 경우도 대폭 늘어난 신간 효과가 매출에 반영돼 있는데 이것이 최종 반품이 되지 않고 최종 실적으로 귀결될 것인지가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하고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 1분기 예산 집행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해당 부서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의견 주십시오.

예, 박강호 이사님.

○ 理事 박강호

제가 6년째 이것 보면서 광고 부분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코로

나 때문에 일시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p)15 보시면 다른 것은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은 없는데 방송 단행본 관련해서 이게 전략성장 지원사업 9개 중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작년 2020년도에 100책 정도를 목표로 했었죠.

○ 企劃豫算部長 김우영

예.

○ 理事 박강호

그런데 아마 50책 정도 나온 것 같고, 50책 정도 나온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분기 때는 막 런칭을 했기 때문에 1책 이렇게 나오고 한 것이고, 그런데 올해는 작년 1년을 거치면서 세팅이 되고 안정화가 되면 1분기에도 6책이 아니라 올해 127책인가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1분기에 6책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제가 지적을 하고자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을 짰을 때 너무 무리하게 의욕 과잉이 아니었나.’ 사실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연간 100책이나 130책 정도를 낸다는 것은 출판 시장에 보면 창비나 민음사 규모의 그것을 EBS가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계획을 봤을 때 와~ 이게 저는 너무 놀라서 사실은 말이 안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EBS라서 가능한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지켜보면서 제가 자세히 들어보진 않았는데 이 수치만으로 봐서는 충분히 아마 그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방송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책 만드는 것하고 방송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방송을 한 10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아마 리라이팅(rewriting) 별로 없이 책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정말, 리라이팅 한다는 게 완전히 책을 새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EBR이든 다큐든 이런 쪽에서 나왔던 분들 얘기한 것을 그대로 그냥 옮겨서 책으로 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작년 1년 진행해 오면서 ‘매우 어려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120몇 권을 사업계획에 올렸던데,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작가, 강의한 사람마다 다 퀄리티가 다르고, 또 전부 편집이나 외주 하청으로 갈 텐데 그 하청업체들 실력도 퀄리티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EBS’라는 브랜드를 들고 나가는데 책마다 다 수준이 다르고, 정말 EBS 브랜드를 달고 나가서는 안 되는 책도 나올 수 있고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EBS 내부에서 여기에 몇 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예상에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

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100몇 권을 다 감당을 못 해요.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다시 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책을 많이 낸다고 해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책 10권 낸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걱정이 돼서 정말 한 말씀 올렸습니다.

○ 副社長 김유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히 보신 것이고요.

127책인가 5책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부 사정은 예를 들어서 지난해 1, 2, 3월로 연기를 해 달라고 필진들이 하신 게, 이 필진들 관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출연자 관리보다 훨씬 어려운, 출연자들은 그래도 방송 일정이, 방송이 핑크 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엄격히 지키는데, 원고 데드라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관리되지 못했고, 이 실적 보고 중간에 하면서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뜯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내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손익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면 적정선을 잡아서 가야 될 것 같고, 또 책도 서로 다른 10권을 내는 것보다 어떤 경우는 기획물로 해서 시리즈물로 내면 약간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전략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자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원천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보고 계획을 재수립해서 다음 보고 드릴 때는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아마 추경을 검토 단계인데 그때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이 책뿐만 아니고, 방송 단행본뿐만 아니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하고 약간 다르고 해서 전반적인 추경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지금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아마 사전에 보고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박 이사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출판계를 아는 입장에서 염려스러웠던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품종 다량으로 많이 출간하는 것이 EBS의 정체성에 맞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가뜰이나 지금 출판계는 거의 빈사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판 단행본 내지는 방송연계 교재의 검증과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해지시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 副社長 김유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유시춘

또 말씀해 주십시오.

○理事 정동섭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1/4분기가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아서 우려스럽다.’ 예를 들어 보통 회사 경영하면 분기별로 그렇게 큰 혁신이 없는 한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광고가 갑자기 책하고 잘 되고 기존에 예상했던 게 잘 안 된다 이랬을 때 상당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2/4분기, 3/4분기, 4/4분기 극복될 수 있는 오차인지, 아니면 그게 한번 1/4분기에서 이렇게 손실로 나면 극복할 수 없는 것인지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대비를 하시면서 경영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企劃豫算部長 김우영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39억원으로 편성했고, 그때 보고 드릴 때도, 그 당시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빠르게 추경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하는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에서 신규로 투자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크게, 아직 출발도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변수, 그리고 세계 석학을 신규 수주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변동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까 방송 기반 단행본 등은 전략 성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과업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다시 적절하게 리밸런싱(rebalancing)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유시춘

또 말씀 주십시오.

○理事 이영한

코로나가 원래 올해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내년 말까지, 아니면 여름까지 갈 것으로 예상들 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 EBS의 경영전략을 한번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e클래스 같은 경우가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돼서 핵심 사업인데 이게 영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내년까지 코로나 관련되는 이 시

대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副社長 김유열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3분의 2 등교를 하고 3분의 1이 재택을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전면 재택을 하고 있어서,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는데, 초중학 VOD 이용률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VOD 이용이 획기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교재 출판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에는 국가적으로 정말 비상 상태에 준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쌍방향 수업보다는 EBS 콘텐츠를 링크한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쌍방향 수업이 전체적으로 늘면서, 링크 수업하고 쌍방향 수업의 차이는 링크 수업은 EBS의 기준에 있는 콘텐츠를 링크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교재 기반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선생님들의 쌍방향 수업은 굳이 EBS 교재를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올해 거의 80%까지가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코로나를 학교 현장에서 대응하는 대응 행태가 지난해하고 현격하게 달라졌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학교를 대부분 고3은 처음부터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초1, 2도 전면 등교를 하고 있고, 재택을 하고 있는 학생 수가 지난해 비해서 아마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그런 행태가 코로나에 EBS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등학교 비연계 교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4월, 5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원인 분석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마 올 하반기보다도 내년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경영전략을 이 토대 속에서 수립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1/4분기 내부 분석을 통해서 긴장을 하고 있고 대책 회의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 理事 이영한

그래서 모든 결과는, 이게 외적인 요인도 있고 내적인 요인도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외적인 요인이고, 과연 우리 EBS 내적인 요인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副社長 김유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또 의견 주시죠.

예, 문 이사님.

○ 理事 문종대

저는 궁금해서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온라인사업 같은 경우 128억에서 227억으로 전년 대비 거의 100억 이상 늘어났는데요.

보니까 구독서비스하고 사이트 기반 제휴 온라인광고 이쪽 부분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높여 봤더라고요.

이게 올해 실현 가능할까요? 예산, 온라인 부분.

한 100억 정도 전년 대비 늘게 잡아봤는데, 올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억 정도 늘려 봤는데, 대부분 내용별로 보면 중학프리미엄이 저희가 작년에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무료 제공을 하면서 매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하면 한 20억 이상 매출은 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초등프리미엄을 올해 초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6월 9일 정도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어들 것 같은데, 초등프리미엄은 유료사업인데 저희 무료사업하고 차이는, 개별 문제들을 동영상별로 다 매핑을 시켜서 자기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동영상을 바로 찾아갈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해서 런칭 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업이 자체적으로 전환이 돼서 그 부분의 매출을 고려했었는데,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관계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클래스 문제가 더 급해서 그쪽에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하반기에 봐야겠지만 한 190억에서 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최대한 목표에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요. 중학프리미엄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보다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理事 문종대

그다음에 키즈존 실적이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방송 플러스 온라인 다 합해서 계산해 봤나요?

예를 들면 키즈존, 오히려 온라인수입도 잘 편성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온라인 수입이 좋으면 방송수입이 적더라도 온라인 수입이 많으면 키즈존 계속 잘 키워 나가야 될 부분 같아서, 혹시 이 부분이 분석이 돼 있는지.

○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키즈 같은 경우 광고는 아직까지는 지표가 좋지 않고요.

그런데 49세 시청률을 보면 조금씩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타겟 광고가 사라지면서 키즈 유튜브 콘텐츠로 매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반면에 어찌됐건 키즈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구독서비스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IPTV 판매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됐든 화제성이 됐든 프로그램 경쟁력이 살아난다면,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사업도 공간사업도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그램들이 살아나면 EBS 경쟁력이나 매출 향상에는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理事 문종대

마지막으로, PPL 올해 실적 제로인데 이게 의도적인 건가요?

‘우리는 그냥 PPL 안 하는 게 EBS 정체성에 맞다.’ 그래서 PPL 안 한 것이지.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A사 상황이 있어서 협찬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위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찬-용역 같은 경우에, 제작협찬 같은 경우에 줄어든 게, 작년에 1분기에 키움 쪽하고 했던 수익이 꽤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류가 힘들게 돼서 공공기관 위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이 약간 있는데 의도적으로 ‘완전히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理事 문종대

감사합니다.

○議長 유시춘

또 말씀해 주십시오.

○理事 김양은

(p)20 보면 구독서비스에 지금 현재로는 목표 대비 지금 탄력 붙어야 될 때 같은데 오히려 약간 그렇게 보여서 혹시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고요.
그것만 일단 말씀해 주시면, 다른 것들은 앞에서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요.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도 콘텐츠 확대 혹은 확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더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 이전을 하면서 시스템들을 프리징을 시켜놔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손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정지돼 있고, 저희가 이달 24일에 어쨌든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옮기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정리가 끝나고 나면 수정 작업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 부분의 영향이 같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 대한 리바이스 요구가 계속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구독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독자를 분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갖추려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10억을 또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무리여서 그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理事 박강호

센터장님, 질문 많이 받으시는데 한 가지만.

EBSlang 있잖아요. 이것 완전히 정리 단계인가요? 부활은 안 되나요?

○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사실 지금 상황은 거기에 쓰는 신경을 다른 데 쓰는 게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 議長 유시춘

저도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p)16 문화콘텐츠사업 분야에 콘텐츠영상공급이 전년동기대비 거의 3분의 2가 감소했거든요. 이게 펍수 실적 하락에도 큰 요인이 있을 테고요.

유행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펍수를 뒤 이을 만한, 승계할 만한 콘텐츠 창조작업이랄까요, 그런 것이 혹시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콘텐츠 영상공급이 저희 센터 것만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펍수가 영상공급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은 아니어서요.

○ 企劃豫算部長 김우영

아니, IP 기반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다 감소한 것이거든요.

펍수 맞습니다.

○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예, 영상공급은 아니고, IP 기반 라이선스 수익이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 지금 유튜브의 런칭을 시작한 것들이 <딩동댕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선인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갓 시작을 해서 <딩동댕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1만 명 정도 됐는데, 여기서 문제는 10만까지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으면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준비해서 지금 런칭하고 런칭할 것들이 서너 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추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 議長 유시춘

그리고 간단한 질의인데, (p)15 출판사업 관련해서 ‘대행출판’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 企劃豫算部長 김우영

‘초등 방학생활’, 교총의 한국교육신문사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방학 때 나오는 초등 교재입니다. 보조 교재.

○ 議長 유시춘

그것을 우리가 대행출판을 하고 있습니까?

○ 企劃豫算部長 김우영

예, 대행을 해서 저희가 이익만 배분받고 있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또 질의 있으신가요?

[質疑하는 理事 없음]

없으시면 그대로 받아도 될까요?

[“예.” 하는 理事들 있음]

그럼 보고안건 2021-6호 「2021년 1분기 예산집행 실적」 은 원안대로 접수합니다.

((議事棒 三打))

【 第2021-7號 : 4月 主要 業務 推進 實績 및 計劃 】

○ 議長 유시춘

다음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7호 「2021년 4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三打))

정책기획센터장, 보고해 주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2021년 4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p)3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항입니다.

<다큐프라임-면역, 위대한 여정 3부작>이 4월 26일에서 28일까지 방송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자체 기획안을 제출받아서 제작을 해 왔던 프로그램이고요,

코로나 시기에 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소구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번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BS <모여라 당동댕> 외부 수상소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PD상 'TV예능' 부문 수상을 했고요.

이 부분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모여라 당동댕> 같은 경우는 지역을 돌면서 시청자와 만나는 프로그램인데 코로나로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1스튜디오에 확장한 멀티스크린 세트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이와 부모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녹화에 참여할 수 있는 첫 편이었습니다.

여기에 창작곡 '반짝반짝 빛나라'라는 노래까지 담아서 그 의의가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EBS 비즈니스 리뷰>가 지식인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사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방송본부에서는 특집 <EBS 비즈니스 리뷰>를 꾸려서 저희가 경영적 성취를 전략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여덟 분의 CEO를 대상으로 그 전략과 경영적 특징점에 대한 것들을 위정현 교수님이 진행을 해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방송할 예정입니다.

4번 사항입니다.

아까 사업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CDM 기반의 웹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웹서비스 클라우드 구축사업 및 클라우드 전환 개발 사업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3월 말에 전환을 완료해서 4월 1일에 오픈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온라인클래스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실시간에 실제 유저들을 중심으로 한 테스트와 또 사전에 저희가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을 면밀히 체크해서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학교본부, 융합기술본부, 스마트사업센터 3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아주 면밀하고 안정적으로 전환 작업을 재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에 있는 대로 저희가 3차에 걸친 정밀 테스트를 거쳐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종 테스트를 진행해서 저희가 체크된 부분들은 이미 수정 또는 수정을 곧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웹사이트가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2022년 교재개발 계획(1차) 수립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교 비연계 교재의 전략은 연계율이 50%로 낮아질 때부터 EBS 내에서 대응전략으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이처럼 출판의 교재개발 계획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히 2022년, '2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초등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사회, 수학, 과학이 검정교과서로 전환이 됩니다. 이에 걸맞는 신규개발을 도모해 보려고 합니다.

6번 사항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과기정통부의 협조를 받아서 런칭한 EBS 러닝 채널이 지속적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준별 학습 콘텐츠의 국고가 들어와서 현재 수준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엄선된 프로그램들을 이 러닝 채널을 통해 같이 송출하는 작업들을 3월 29일부터 편성 개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초등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기존 9시부터 12시까지 송출되던 것을 9시부터 14시 20분까지, 중1, 2는 기존 9시부터 12시 40분까지 방송되던 것을 9시부터 15시 20분까지 방송을 연장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고요, 흔쾌히 응해 주셔서 이를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융합기술부의 중계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 중계녹화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인력을 저희가 송출 인력으로 전환해서 15시 20분까지는 해당 인력들이 송출 업무를 수행하시고, 또한 9시까지는 송출 파일에 대한 품질 검수를 매일 진행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스마트사업센터에서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0년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매출은 9.8억원인데요. 올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과 계획들을 세워서 해당 사업이 저희에게 잘 올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8번 사항입니다.

외주제작 대표단체 상생협의회의가 작년에 이어 4월에 재개되었습니다.

작년에 총 5회에 걸친 외주제작 대표단체 상생협의회가 열렸었는데요. 코로나와 연말연시 각 단체의 내부사정으로 해서 회의를 열지 못하다가 4월 12일에 재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외주 관련 상생방안을 강구해서 이를 3단체가 같이 합의를 하고 이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EBS의 상생 의지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p)35 9번 사항입니다.

글로벌 석학 강연 사업 국고사업이 EBS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는 간단히 기술되어 있는데요. 제가 글로벌 석학 강연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마스터클래스 사업으로 공모가 나왔고요, 이것에 저희 EBS가 콘텐츠기획센터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서 입찰에 응했고요. 그래서 최종 3월 18일에 입찰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고는 총 49억원이 지원되고, EBS 예산은 43억 정도를 투입해서 총 9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몇 번 보고를 드린 것처럼 글로벌 리더나 베스트셀러 작가, 노벨수상자 등 세계적인 석학들의 세계적인 강의를 제작해 EBS1, 2TV 방송, K-MOOC 무료서비스, 또 해외 대상의 유료서비스 등을 예정한 사업입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한 2021년 9월 가을편성 때부터는 1, 2TV 주 5편의 데일리 방송을 예정함으로써 국내에 상당한 이슈들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플랫폼 구축사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6개국 다중언어와 추천 알고리즘이 적용된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다국어 자막을 만들어서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자와 기획 방향에 대한 외부의 엄정한 자문을 받기 위해 글로벌 석학 자문위원단을 꾸려서 4월 7일에 줌 회의를 거쳐서 이런 내용들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번 사항 보고는 짧게 마치고요.

10번 사항입니다.

2021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퇴직자, 그 이후로는 거의 30명에 육박하는 수준의 퇴직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계획들을 반영해서 미리 뽑아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경영지원센터장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 채용 부분은 간단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서장으로 구성되는 채용인력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서 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거기에 따른 직무와 인원을 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올해 퇴직 예정인원이 7명이고요, 내년엔 15명입니다. 그리고 '23년부터 '33년까지 12년 동안 연평균 한 26명씩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또 이전에 저희가 결원의 한 7~10%에 가까운 정원대비 결원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퇴직 예정 인원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인력을 뽑아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현재 노조와 이 부분을 단협에 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한 00명 정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이상으로 4월 주요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의견 주십시오.

○ 理事 장옥님

지금 경영본부장님 말씀하신 신규직원 공개채용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인가, 하반기에 뽑고 6개월 만에 뽑는 거네요?

그렇죠?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예.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지금부터 이 시기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늦었습니다.

○ 理事 장옥님

작년에는 늦어져서?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1월에 임용을 했고요.

○ 理事 장옥님

예. 했고, 또 바로 퇴직예정자 발생하기 때문에 하고?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예, 올해 퇴직예정 인원과 내년 퇴직예정 인원.

○ 理事 장옥님

아까 00명 내외라고 그러셨나요?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예, 00명 후반대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理事 장옥님

00명 후반대, 그러면 00명 이상 그 정도 되겠네요.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예.

○ 理事 장옥님

선제적으로 인원 보충하는 그런 계획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앞에서 1분기 예산안 실적보고도 들었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출판 쪽에서도 작년에 단행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경력직이나 이런 출판 전문인력도 따로 뽑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출판사업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기대에 못 미치고 이런 면도 아까 보고를 들은 게 있는데요.

물론 새로운 인력을 제대로 잘 뽑는 것은 중요한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지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규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인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예. 작년에 말씀하신 교재개발 쪽은 신입 1명을 뽑았습니다.

○ 理事 장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입사원을 뽑은 게 아니라 단행본 출판, 그러니까 북&렉처 그것 관련해서 아

마 출판 관련 경력 직원도 따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등등해서 ‘채용 인원이 또 방만해지는 게 아닌가.’ 이것은 너무 지나친 우려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예, 알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김진 이사님.

○ 理事 김진

저도 너무 많이 드려 가지고 죄송하기는 한데, 지금 어쨌든 실적도 제가 이사 하는 기간 중에서는 제일 나쁘지 때이고, 또 채용계획도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니까 인력 전체 계획 세우실 때 파견직 전환하는 문제를 계획이나 협의 테이블이라도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그 부분은 지금 사적인 계약관계이지 않습니까, 파견직은. EBS와 파견 업체와. 그런 계약 종료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것보다도 먼저 EBS 재정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김진 이사님 말씀하셨던 취지는 시대정신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비정규직이나 외부 상생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 7기 이사회가 시작하고 3년째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혹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을 정규직인 통계가 혹시 있을까요?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예. 지금 저희가 한 24개 직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으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議長 유시춘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24명입니다.

○議長 유시춘

24명이요, 예.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파견직이나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화하라는 것이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예.

○議長 유시춘

그리고요, 이 업무 추진 실적 관련해서 제가 제안 사안이 하나 있는데요, 결코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15년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한국인을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EBS 제작진과 프로그램 만드는 분 모든 분들의 제작과 편집의 독립과 자율을 존중하면서 하나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4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1번의 <다큐프라임-면역, 위대한 여정 3부작>은 너무나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야말로 EBS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의 기획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것도 코로나19와 무관치 않을 텐데 매우 시의적절하게 잘 기획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의성과 관련해서 <EBS 다큐프라임>이라든가 <클래스>든가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지금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안하무인의 태도가 지금 절정을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램지어 교수의 정말 영터리 위안부 논문이 그 스스로 국제적인 비난과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진도, 여진이랄 것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어제 또 오염수 방출을 두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안하무인의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진보, 보수,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합의해서 지금 일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10대들은 이 문제의 원천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현대사를 교육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면역에 대한 다큐프라임 3부작을 하듯이, 저는 이 프로그램 방송대상을 이미 예약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우리 국민의 지적인 수준이나 또 코로나19라는 이 매개체로 인하여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넓혀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과 동일선상에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한국의 자존을 흔들고 있는 이런 문제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은 이 문제를 어느 층위에서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EBS가 저는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맞아서 이런 면역이라는, <면역의 여정>을 아주 전문가들 시선으로 잘 만들 터인데요. 이런 같은 태도로 지금 한국의 자존을 크게 흔들고 있는 이 2가지 문제의 연원과 그리고 10대, 20대 청소년들의 크게 보면 민족의 자존이고요, 좁게 보면 현대사에 대한 이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여와 야,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일심단결해서 지금 이 사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외적인 부담 없이 이런 문제야말로 EBS의 정체성을 높여줄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문 이사님.

○ 理事 문종대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다큐프라임-면역> 이런 것들은 정규편성이 아니라서 자체 광고, 방송에 대한 광고가 잘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 理事 문종대

잘 하고 있겠지만, 정규편성이면 팬층은데 자체 광고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리뷰>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이런 편성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작은 성공과 실패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 사실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와서 하는 것들은 이런 작은 소상공업인데, 이때 정말 성공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거쳐서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성공한 것만 보여주니까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 같아요, 우리와의. 사실 그들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리뷰> 이것 지금 8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나중에 확대 편성할, 그때 반응 봐서 확대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 다음에 또 기획할 사안이 있으면 소상공인들의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들 이런 것들도 잘 다뤄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박강호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박강호

이 말은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00명 대 후반을 채용하면 굉장히 많이 뽑는 거네요. 그러면 한두 명 더 붙여서 00명 뽑으십시오.

그러면 ‘와~ EBS 비전 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려운 때일수록 이렇게 인력채용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장님하고 부사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는 매년 나왔던 얘기인데, 인력 뽑을 때마다 이 직군별, 직능별 나눠먹기나 거기에 쫓겨서 정작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은 보장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게 늘 있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의견 수렴은 해야 되겠지만, 사장님, 부사장님이 정말 잘 판단하셔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꼭 뽑으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 理事 박강호

그것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력 채용 관련해서 EBS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업체에 맡기니까, 전체를 뽑는 것을?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전형 절차에 따라서 대행사를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진행 절차에 관여되는 것이지, 모든 결정은 EBS에서 합니다.

○ 理事 박강호

대행사가 하는 역할은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채용 플랫폼의 홍보나 지원서 접수 이런 부분을 대행을 해 주고요.

○ 理事 박강호

그것을 왜 제가 묻냐 하면, 특정업체가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매년 하게 되면 그 업체의 뭐라 그럴까요, 틀에 갇히는 그런 우려도 되고 해서 한 업체만 하지 말고 다른 업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예. 채용 절차라든가 전형 절차 이런 부분들은 EBS가 정합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이영한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이영한

글로벌 석학 강연 사업 이것은 엄청나게 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예산도 거의 100억 정도에 육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런 종류의 사업 중 최대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책임도 있고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괄적인 일정이, 그러니까 이 200여 편이 올해 안에 다 소화되는 겁니까?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 理事 이영한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석학들의 선정은 어떻게 해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그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콘텐츠기획센터장님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저희가 석학 선정은 일단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라든가 제작진들 관련 분야 전문가들한테 해서 1차적으로 많이 보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에 나왔지만 4월 7일에 세계석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각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기구인데요. 거기에서도 관련 분야 학자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분들, 적합한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理事 이영한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일정을 100억이라는 돈을 올해 안에 다 소화하다 보면 줄속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여유를 잡고 내년까지를 사업 일정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올해 다 하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그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 그냥 자문위원들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이 필요해요, 기획. 기획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많이 아는 사람들 모아놓은 위인전 모음집 같은 것을 탈피해서 이것을 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우리나라나 세계에 대한 메시지 같은 것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 기획이 필요해요, 기획이.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어떻게 추진할지를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말씀드리면, 총 예산 중에 19억원 정도는 저희가 구축하는 비용으로 플랫폼 구축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정부에서 올해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석학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같은 기준에 나왔던 석학이 나와도 저희가 ‘어떤 것들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理事 이영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위인전을 모아놓은 위인전이 아니라, 여기에서 전체 석학들의

뭔가 메시지가 나와서 우리가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언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저번에 저희가 자문위원회 개최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제작진이 지금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理事 이영한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다 소화될 수 있어요, 예산을?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그것은 지금 진행상으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理事 이영한

소화는 되겠는데, 진짜 질도 확보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거죠.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社長 김명중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은 한 50억~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이고요.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 촉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지금 제작진들은 이미 코로나 면역주사를 맞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빨리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도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12월 말까지 방송이 끝나야 되느냐? 가능하면 한두 달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조금 우리한테 여유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획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날도 환경, 기후변화, 또는 포스트 코로나 등등해서 몇 개의 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세계 석학’이라는 이름도 석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그 브랜드를 지금 별도로 가장, ‘유튜브에 나와 있는 콘텐츠를 다시 보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새롭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많은 의견들을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자문위원 외에도 반도체다 그러면 또 반도체 분야의 서너 분이 자문위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십 명의 자문을 실질적으로 받아서 선정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

는 부분은 또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방향성도 얘기를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理事 이영한

그래서 어쨌든 일정을 꼭 올해보다도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일정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社長 김명중

예.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아까 인력과 관련해서도 사실 잘 알고 계시지만 올해 예산이 저희가 3,600억 플러스 또 교육부 예산, 또 다른 것까지 합치면 작년보다 1,000몇 백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일이 늘어나서 평상시에 인력을 뽑는 것보다 조금 더 갈 수밖에 없고, 사실 이번에 PD들도 보면 중요한 프로그램인데도 인력이 없어서 전부 외주 PD에게 일임을 하게 되면 또 퀄리티 매니지먼트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도 가능하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이 한 3분의 1 가까이 폭증한 그런 상황에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정말 대학생이 중학생 옷을 입고 있는 듯한 인력 규모여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나가는 숫자보다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議長 유시춘

아까 박강호 이사님께서 더 많이 뽑으라고 하셨는데 저도 주문할 것이, 너무 이렇게 기술, 경영, PD 이렇게 너무 기계적인 균형이라는 것은 그닥 그렇게 고려할 대상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칠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가다가는 CP 체제로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PD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도의 문제도 있고요, 또 모처럼 그렇게 증액된 예산도 받았고요, 그래서 퇴임하시는 숫자보다 좀 더 넉넉하게 콘텐츠 제작에 투여할 인력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박 이사님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다면 콘텐츠 제작 인력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뽑고 육성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 이사님 제안에 굉장히 적극 지지합니다.

○ 社長 김명중

예.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콘텐츠 창작 집단이기 때문에 프로듀서에 대한 것도 가장 많은 배려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IT 전문가들, 저희가 온라인클래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저희가 사업 쪽은 사업대로 자꾸 매출액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분야에 최소한도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또 의견 주십시오.

이사회에서 견제하는 게 아니라 더 뽑으라고 하니 참 좋은 일이네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감사합니다.

○ 議長 유시춘

또 말씀해 주십시오.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한 이사님 염려하신 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각계 정치, 경제, 금융, IT 등등,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해서 가히 대한민국의 제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실 분들을 우리 제작진에서 보니까 자문위원들로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제가 많이 안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사분들도 각기 영역이 다르시니까 언제든지 조언을 해 주시면 수용할 준비는 돼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언제든지 보시고 자문해 주시고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社長 김명중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날 교육부와 국평원이 줌 회의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큰 안도를 했고, ‘아, 정말 이렇게 EBS가 할 줄은 몰랐다.’ 그런 평이 있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없으면 이것으로 의결할까요?

[“예.” 하는 理事들 있음]

그럼보고안건 제2021-7호 「2021년 4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은 원안대로 접수합니다.

((議事棒 三打))

(閉會：17時 28分)

V. 閉 會

○ 議長 유시춘

이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08회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事棒 三打))

고맙습니다.

[理事들 “수고하셨습니다.”]

《散 會》